

## 火病에 對한 文獻的 小考

具炳壽 · 李鐘馨 \*

### I. 緒 論

火病은 흔히 民間에서 使用한 用語로써, 韓醫學의 病名은 아니며 우리들의 日常的인 生活 가운데 “울화통이 터진다”든지 “애간장을 녹인다” “화가 홀에비 동심하듯하다”라는 등 여러가지의 用語로 表現이 되어 왔다.<sup>1)</sup> 民은 火病은 精神醫學에서 말하는바, 所謂 韓國의 文化와 關聯된 精神醫學的 症候群(Culturebound Syndrome)의 하나로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論議가 있어 왔다고 하였으며<sup>2)</sup>, 李는 感情處理가 잘 안되서 생기는 心因性 疾患이란 뜻으로 韓國人이 오래 동안 使用해온 一般的인 用語라고 主張하고 있다.<sup>3)</sup> 李는 火病을 神經症으로 본다면 Freud의 Psycho Neuro-

狀態에서 오는 Actual Neurosis로 본다고 하였다<sup>4)</sup>. 李는 火의 性質을 性暴無常 主病多라 하였고 註에 火病死人이라하여<sup>5)</sup> 病의 危重함을 言及하고 있다. 黃은 怒와 感情이 累積이 되면 이런 感情은 Freud에 依하여, 一種의 <心的 energy>라고 生覺했는데, 이 에너지는 物理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어떤 形態로든 간에 發散되지 않으면 心低에 남아 있게 된다고 하였다<sup>6)</sup>. 具는 熱이 極하여 火로 化하며 火는 熱의 變化가 盛하여 진것이고 火病의 症狀이 強烈하여 臟腑를 燻하고 津液을 消耗하는데 症狀은 壯熱 心煩 口渴 咽痛 面赤 目紅 脈數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火證과 熱證으로 나누어 分類를 하고 있다<sup>7)</sup>.

火病과 更年期 症候群에 있어 類似한 點이 있으며 更年期를 節의 概念으로 認識할

1) 南廣祐 外二人 監修: 韓國大辭典(서울: 玄文社, 1976), p.1834.

2) 민성길, 김진학: 보길도에서의 화병에 대한 연구, 神經精神醫學, 25:459.

3) 이동식: 火病考 - 學問하는 態度, 對話 3: 65-68.

4) 이시형: 화병(禍病)에 대한 연구, 高麗: 第一卷 第二號, 1977, P.68.

5) 李純: 醫學入問(서울: 高麗醫學, 1989), p.349.

6) 黃義完: 心身症(서울: 杏林出版, 1985), p.15.

7) 具本泓外 四人: 東醫心系內科(서울: 書苑堂, 1987), p.173, pp.174-179. 火證의 分類 - 君火, 相火, 陰陽火(陰虛, 陽虛, 陰虛內熱, 陽盛內寒, 陽虛外寒, 陽盛外熱, 陰虛火旺). 熱證의 分類 - 五臟의 熱證, 積熱, 骨蒸熱, 五心熱, 潮熱, 虛煩.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수가 있고 8), <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七과 八의 單位로 <靈樞：千年編>에서는 十의 單位로 人體의 生理的인 變化를 說明하고 있다 9)10). 火病으로 惹起되는 臨床症候群이 現代의 更年期 症候群과 類似點이 많다고 生覺되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火에 對한 考察

內經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壯火와 少火의 問題가 提起되었고 11)12) <天元紀大論>에서 君火와 相火에 대한 言及이 처음 나오며 13) <氣交變大論>에는 火의 太過에 의한 病症을 敍述하고 있다 14). 劉宗素 <至眞要大論 中の 病機十九條>를 가지고 대다수의 疾病을 火 熱 爲主로 說明하였다 15) 張은 劉河間의 五志之火의 問題를 強調하였

고, 四十에서 五十에 이르러서 血崩하는 婦人은 五志의 太過에 依하여 病이 되며 五志의 過極으로 되는 病은 모두 火에 歸屬이 되며 火鬱이 되어 血熱이 妄行하게 된다고 하였다 16). 范은 火鬱은 孤立하지 않으며 氣鬱과 密接한 相關이 있으며 血 痰 濕 食 火 五邪는 氣鬱과 同伴한다고 하였다 17). 李는 脾胃의 氣가 衰弱하면 心火가 獨盛하고, 下焦의 腎氣가 不化하여 鬱滯되어 熱을 發生하게 되는데 이를 相火 包絡之火 督任衝 三脈盛이라 하였다. 또한 火와 元氣는 兩立할 수 없고 陰火는 氣虛에 依하여 發生하고 生長하는 元氣의 眞陽을 相火라 하였다, 陰火는 下焦에 藏하여 肝腎을 溫養시키며 元氣인 陰火를 損傷시키는 것을 邪火라 하였다 18). 朱는 陽常有餘 陰常不足을 主張하여 火의 重要性을 強調하였으며 19), <養老論>에서 人生 六七十 以後에 精血

8) 宋在國：周易集論(서울：成正出版社，1989)，p.241，水澤節(六十번째).

9) 洪元植：精校黃帝內經 素問(서울：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1981)，pp.11-12.

10) 上揭書 精校黃帝內經 靈樞 天年篇，p.241.

11) 洪元植：精校黃帝內經 素問，p.23. 壯火之氣衰 小火之氣衰 壯火食氣 氣食小火 壯火散氣 小火生氣.

12) 金完熙，崔達永：臟腑辨證論治(서울：大成出版社，1985)，p.407. 君火는 心火를 가리키고 相火는 腎에 所藏되어 있는 元陽을 가리키며 少陽을 相火라 부르며 壯火는 火氣가 過心하여 人體에 有害한 火를 말하고 少火는 陽和之火를 가리키는데 이는 人體에 없어서는 안될 陽熱이다.

13) 洪元植：精校黃帝內經，p.234. 鬼臾區曰 天以六爲節 地以五爲制……君火以明 相火以位.

14) 上揭書：p.248. 氣交變大論 歲火太過 炎暑流行 金肺受邪 民病疝 少氣 咳喘 血溢 血泄 注下…… 耳聾 中熱 肩背熱……甚則胸中痛 脇支滿 脇痛 膈背肩胛間痛 兩腎內痛 身熱骨痛……

15) 劉元素：素問玄機原病式(南京：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1)，pp.2-3，p.31.

16) 張宗政 校註 張海峯外 三人：儒門事親(河南：河南科學技術出版社，1984)，p.189. 謂五志所發 皆從心造 故凡見喜怒悲驚思之證 皆以平心火爲主.

17) 范永升：素問玄機原病式新解(浙江科學技術出版社，1984)，p.73.

18) 李東垣：東垣十書(서울：慶熙醫大漢醫學部，1973)，p.1. 脾胃論：<飲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 喜怒憂恐 損耗元氣 既脾胃氣衰 元氣不足 而心火獨 盛心火者陰火也 起於下焦 其系繁於心 心不主令 相火代之 相火 下焦包絡之火 元氣之賊也.

19) 朱丹溪：格致餘論(南京：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5)，p.56. 惟火有二曰 君火 人火也 曰 相火 天火也 火內陰而 外陽 主乎動者也 故凡動皆屬火 以名而言 形氣相生 配于五行 故謂之君 以位而言 生于虛無 守位稟命 因其動而可見 故爲之相…… 天非此火不能生物 人非此火不能有生.

이 모두 消耗되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않아 火를 잘내게 되며 20) 〈陽有餘陰不足論〉에서 物에 쉽게 動하여 心이 動하면 相火 역시 쉽게 動하게 되어, 相火가 일어나면 비록 交合은 하지 않아도 陰精이 흐른다고 하였다 21). 李는 有餘之火, 有餘中不足之火, 不足之火 卽 實火 虛火로 나누었다 22). 張은 〈景岳全書: 君火相火論〉에서 火는 무릇 사람을 傷하지만 君火인 眞火는 그렇지 않으며 邪火는 敵이라 말할 수 있으나 相火는 가히 敵이라 말할 수 없다하였고 23) 〈傳忠錄〉에서 河間은 虛實을 判斷하지 못하고, 盛衰를 觀察하지 못하여 모든 病을 實火로 써 말한 것을 批判하고, 今日의 病은 虛火로 因한 者는 많으나 實火인 境遇는 적은데 어찌하여 모두가 有餘한 實火의 病에 屬하겠는가 하였다 24). 孫은 〈赤水玄珠〉에서

正火와 邪火로 區分하였다 25). 趙는 〈醫貫〉에서 氣鬱이 되면 濕滯가 되고 濕滯는 熱을 發生하게하고 熱이 鬱滯가 되면 痰을 生하게 하고 痰이 結滯가 되면 血에 障礙가 생기고 26), 三焦는 眞陽之火를 가지고 있으며 心腎을 相通하고 三焦와 心包絡의 表裏가 된다고 하였다 27). 命門火의 不足으로 足心熱 陰股熱 腰脊痛 등이 發生하게 되며 世上사람들 中에 火가 旺盛해서 病든 사람은 十名中에 八九이고 火가 不足한 사람은 百名中에 한두명도 없다하였으며, 28)29)30) 〈相火龍雷論〉에서 火는 두가지가 있는데 人火는 燎原之火, 相火는 龍火 雷火라 하였다 31). 熱이 極하면 眼球의 突出과 손이 얼음같이 차가워지는 것을 心火內熱로 보았으며 32), 사람이 怒한 後에 全身 關節이 아프고 胸腹이 가득하고 눈을 감으려하고

20) 上揭書: 養老論, p.9. 人生之六十 七十以後 精血俱耗 平居無事 已有熱症.

21) 上揭書: 陽有餘陰不足論, p.3. ……主閉藏者 腎也 司疏泄者 肝也 二臟皆有相火 而其系上屬於心 心君火也 爲物所感則易動 心動則相火亦動 動則精自走 相火翕然則起 雖不交合 亦暗流而疎泄矣.

22) 李梴: 醫學入門(서울: 高麗醫學, 1989), p.349. 註)外因 邪鬱經絡 積熱臟腑 此爲有餘之火 內因 飲食情慾 氣盛似火 此爲有餘中不足 陰虛火動 乃不足之火……實火渴閉熱無間 虛火有間口無何.

23) 張景岳 景岳全書(上冊) 君火相火論(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42. 且凡火之賊傷人者 非君火之眞火 無論在內在外 皆邪火耳 邪火可言賊 相火不可言賊也.

24) 上揭書: 傳忠錄〈辨河間〉, p.62. 不辨虛實 不察盛衰 悉以實火言病 著爲原病式以訖於今 夫實火爲病 固爲可畏 而虛火之病尤爲可畏.

25) 孫一奎: 赤水玄珠(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p.61-62.

26) 趙獻可: 醫貫(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4. 氣鬱而濕滯 濕滯而成熱 熱鬱而成痰 痰滯而血不行 血滯而食不消化.

27) 上揭書: p.22. 三焦具眞陽之火. 註)焦 熱也 滿腔中熱 氣布斡 能通調水道 按三焦從 右腎生出 心腎相通 三焦因與心包絡 相通而爲表裏.

28) 上揭書: p.53. 心火者 有形之火也 相火者 無形之火也 無形之火 內燥熱而 津液木古.

29) 上揭書: p.55. 腎不虛則 水足以制火 虛則火無所制 而熱症生矣 名曰陰虛火動…令人足心熱 陰股痛 腰脊痛.

30) 上揭書: p.56. 但世之人 火旺致病者 十之八九 火衰成病者 百無一二.

31) 上揭書: 相火龍雷論, p.56. 火有人火有相火 人火者 所謂燎原之火也……相火者龍火也 雷火也……

32) 陳士鐸: 辨證錄 卷之六(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319. 熱極發斑 目睛突出 兩手冰冷 此心火內熱 所謂亢則害也.

手指와 손톱이 靑黑色이 되면 陰症 傷寒으로 誤認하기 쉬우나 누가 이를 火熱의 病이라고 알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바가 있다 33). 唐은 〈血證論〉에서 生理를 할 때 心火가 내려가면 血이 盛하여 火가 亢烈하지 않아서 男子는 病이 없고 女子는 妊娠할 수 있고, 血虛하면 肝이 藏하는 기운이 不足하여 火가 動하게 되고 火가 旺盛하면 血을 傷하고 따라서 血病 火病이 發生하게 된다고 하였다 34). 陳은 사람이 火가 없으면 능히 生活을 할수가 없고 火가 있고 난 이후에 十二經絡이 生化之氣의 發動을 얻게 된다 하였다 35), 石谷의 〈醫鑑重磨：扶陽論〉은 〈內經：生氣通天論〉이 理論的인 根據가 되고 滋陰의 藥을 使思하는것을 禁하고 人體는 恒常 陽이 不足하는 病이 된다고 하였다 36), 韓은 火病이란 火者는 陽也요 陽勝陰이니 卽 火克水라 水去則 火殘留하나, 火者는 無形也 故로 形瘦也라, 사람이란 슬프거나 火가 복받쳐 올때에는 실컷 눈물을 흘려버리면 病이 안된다고 하며 이는 水로써 火를 從外出한 所以라고 하였다 37). 韓은 火氣를 이르기를 分散을 爲主로 하는 기운이며 四時 中의 여름은 外形은

茂盛하지만 內面은 空虛하여 지는 때이므로 生長의 力源은 끝나고 老衰의 바탕이 시작되는 때이고 火의 平氣를 升明, 不及을 伏明, 太過를 赫曦라고 하였다 38)39), 蔡는 三焦와 胞絡火에 對해서 陽熱은 命門眞火에 根源하였으나 모든 醫書에 火證이 三焦에 屬한 것은 三焦火라 하고 火證이 胞絡에 屬한 것은 胞絡火라 하여 그 述語가 火의 妄動인 炎證 充血 發熱 등의 病的現狀에 많이 使用되어 있어 肝火 心火 脾火 肺火 腎火 小腸火 大腸火 膽火 胃火 膀胱火 等 예와 같으나 命門火는 人體의 元陽인 眞火인 故로 生理的인 用語로만 使用되고 있다고 말한다 40). 頭火는 肝火, 火眼은 急性結膜炎 火牙는 胃火의 上行, 寒包火는 體內에 潛伏되어 있는 熱邪 暑邪 燥邪 風熱感冒, 火咳은 慢性咽炎, 火喘은 喘息性 氣管支炎, 火邪는 濕熱이 火로 變하여 생긴 것이며, 痰火는 腋下淋巴結核, 火中은 中風의 一種으로, 火丹은 心火의 妄動으로 肌表에 이상을 나타내며, 火毒은 瘡瘍腫毒으로 七情이 內鬱하여 火가 안으로 侵犯한 것으로 보았다 41) 杜는 命門의 機能은 五臟六腑와 全身에 灌及하니 生體의 盛衰盈虛의 左右하고 三焦

33) 上揭書：p.325. 人大努之後 週身百節俱疼 胸腹且脹 兩目緊閉 逆冷手指甲靑黑色 人以爲陰症傷寒也 誰知是火之病乎.

34) 唐容川：血證論(上海：上海人民衛生出版社，1977)，pp.2-3. 月事時下 血下注於 血海之中 心火隨之火濟 故血盛而火不亢烈 是以男子無病而 女子受胎也 或血虛則肝失所藏 木旺而愈動火 心失所養 火旺而益傷血 是血病卽火病矣.

35) 洪元植釋：國釋石室秘錄(上)(서울：書苑堂，1991)，p.76. 陳士澤 石室秘錄，p.55. 人非火不能生活 有此火而後 十二經始得其生化之機.

36) 金勳：李圭峻의 生涯와 學說에 對한 研究，慶熙大學院，1979，pp.15-16，p.24.

37) 韓南洙：石塘韓醫學，國際印刷工業社，1985，p.578.

38) 韓東錫：宇宙變化의 原理(서울：杏林出版社，1980)，pp.35-36. p.45，p.48，p.52.

39) 洪元植：精校黃帝內經，五常政大論，pp.252-258.

40) 蔡仁植：人身의 火에 對한 考察，醫林社，Vol.77，p.31，1966.

41) 章眞如：風火痰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6)，pp.63-73.

와 配合하여 各 臟腑의 機能을 營爲하는 機能으로 解剖學的으로 腦, 脊髓의 中樞神經系와 合一되고 있으며 生殖腺, 甲狀腺 器官과도 有關하다고 하였다<sup>42)</sup>. 人身에 있어서 肺가 天이 되고 腎이 地가 되어 兩藏이 天地를 形成하였고 肺와 腎사이를 三焦가 流動하면서 熱을 發하여 肺와 腎사이에 있는 藏府에 熱을 加하고 三焦는 單純한 自身發熱뿐만 아니라 上下에서 熱을 받게 되니, 上에서는 心이 君火로 熱의 源泉이 되고 太陽의 熱作用을 하고 下에서는 命門火가 大火를 發生하고 中에서는 小腸火가 猛火를 發生해서 三焦를 熱하게 되니 實은 心 小腸 命門 三機關의 代行機關이라고 하였다<sup>43)</sup>, 尹은 熱代謝가 아니면 生長化收藏의 機能發顯이 있을수 없고, 熱代謝가 停止되면 氣立하여 死한다고 하였다<sup>44)</sup>. 身體의 모든 細胞들은 物質代謝를 계속하므로 熱 生産을 하게 되는데 그 中에서도 주된 熱의 生産은 肝 心 腦 腎臟 및 內分泌線인데 安定時에는 比較的 활발하게 化學的인 變化를 일으켜서 熱을 生産해서 體熱의 50%를 擔當하고 骨格筋에서 全體의 40%를 擔當한다고 하였으며<sup>45)</sup>, 章은 人體의 眞火 元陽은 抗體와 相當하며 外界刺戟에 依하여 免疫反應을 일으키고 元陽不足은 免疫機能을 低下시킨다고 하였다<sup>46)</sup>.

## 2. 火病에 對한 考察

西洋의 表現 文化圈에 比해 韓國에서 의 抑壓文化圈이 서로 相異한 背景을 考慮한다면 火病은 우리 文化圈의 독특한 精神 疾患으로 볼 수 있으며, 衝擊期 葛藤期 諦念期 症狀期의 四段階를 밟아서 火病이 發生하며 諦念期에는 自己의 不幸을 超自然에 投射함으로써 火를 中和시킨다고 하였다<sup>47)</sup>, 李는 脫營, 失志, 鬱怒, 悲哀, 思慮, 憂鬱 등 온갖 精神의 苦惱와 葛藤은 心臟의 自律循環과 精神機能에 크게 影響을 주어서 心臟拍動의 異常, 血液循環의 變調 및 精神機能의 衰弱 등을 招來하여 心悸 高血壓 血管硬化 不安 不眠 健忘 등 證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으며<sup>48)</sup>, 李는 內向型에서는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될 수 있는대로 안에 간직하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內向型에서는 “리비도가 안으로, 즉 主體로 向하여 흐른다고 하였고, 極端的인 內向的 態度에 依하여 生기기 쉬운 典型的인 神經症을 神經衰弱症 (psychasthenie)이라고 하였다<sup>49)</sup>. 一般 神經症에 比하여 女子가 더 많이 있으며 身體化障礙, 憂鬱症, 凡不安障礙가 複合된 하나의 慢性 症候群으로 보았고 誘發 因子들은 모두 心理的인 것이며 家族內의 問題와 家難으로 나타나고 특히 婦人들에 있어서 男便의 술, 賭博, 外道 等과 媳宅과의

42) 杜鎬京: 東醫腎系內科學(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9), p.28.

43) 醫學輯要: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1989, p.161.

44) 尹吉榮: 東醫學 方法論 研究(서울: 成輔社, 1983), p.27.

45) 金正鎮: 生理學(서울: 高文社, 1988), p.201.

46) 章眞如: 風火痰瘀論, p.74.

47) 이시형: 災(禍)病에 對한 研究, 高麗: 第一卷 第二號, 1977, pp.64-66.

48) 金永勳著, 李鐘馨篇: 晴崗醫鑑(서울: 成輔社, 1988), p.236.

49) 李符永: 分析心理學 < C.G. jung 의 人間心性論 > (서울: 대경문화사, 1991), p.120, p.131.

葛藤 子女들의 속씩임 等이라고 하였다<sup>50)</sup>. 火病에서는 抑制하기 힘든 感情的 衝動이 “속 끓는다” “속이 탄다” “열분이 난다” “벌렁댄다” “확확댄다” “치밀어 오른다” 心火 煩熱 鬱火 등 불의 物理的 現狀으로 表現 내지 身體化되었다고 하였고<sup>51)</sup>, 不完全한 抑制때문에 一部 意識하고 있는 衝動的 感情反應과 一部 身體化된 症狀들이 하나의 未分化된 狀態로 通稱되는 것으로 生覺되며 이러한 狀態는 불의 逆動성과 그 部分的 抑壓狀態를 象徵化하고 있다. 따라서 火病的 症狀는 憂鬱, 不安, 不眠, 消化障礙, 頭痛, 身體疼痛 等 一般的인 神經症的인 症狀 以外에 特徵的인 답답함, 열기, 입마름, 치밀어 오름, 心悸 亢進, 목가슴의 덩어리 멍침, 한숨, 뛰쳐나가고 싶음 等 火病 特有的 症狀과 illness behavior 로써의 하소연 말음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였다<sup>52)</sup>. 火를 身體的인 症狀으로 보면 韓醫師들은 “自律神經失調症”을 包含한 身體機能의 不均衡이라고 對答한 사람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鬱滯, 熱感과 發熱, 陰의 不足과 陽의 亢進 順이고 其他는 悸亢進症, 心中痺, 胸痺, 火의 不均衡, 精神的 緊張, 體質要因, 心因性 疾患이라고 하였으며 精神科 醫師의 火病的 診斷은 神經性, 스트레스, 憂鬱症, 不安症의 順序로 보았다. 또한 女子의 境遇는 40, 50代에 많

다는 것은 韓醫師와 精神科醫師 모두 共通이며<sup>53)</sup>, 學歷이 낮은 層에 많이 發生하며 火病患者는 自身の 障礙에 神經을 쓰며 살다보니 의례히 생기게 마련인 “神經性” 症狀뿐으로 認識하고 있는 듯하다고 하였다<sup>54)</sup>. 李는 우리 先祖는 시어머니의 抑壓에 蓄積되는 스트레스를 “도리깨 내리치는 強度, 부지깥이의 길이, 니씨애미박 똑딱 (시장근 치기)” 등으로 抑壓을 發散함으로써 相對에게 알리는 媒介體 이었다고 하였다<sup>55)</sup>.

### 3. STRESS 와 氣에 對한 考察

Hans Selye 教授가 主唱한 것으로 身體가 여러가지 刺戟에 依한 反應中에서 刺戟의 種類에 關係없이 같은 反應(非特異性反應)을 일으키는 境遇를 stress 라 하였고<sup>56)</sup>, 李는 stress 의 概念이 여러 障礙의 理論을 說明하는 가운데 身體 脆弱理論, 즉 어려서 疾病 食事 等の 特定器官을 弱化시켜 stress 에 脆弱하게 한다는 것이고, 特定反應理論은 人間은 stress 에 對한 自律的인 反應上에 있어서 각기 독특한 反應樣式을 가진다는 것이다<sup>57)</sup>. 黃은 Selye 가 主張한 stress 에 對한 身體反應의 메카니즘을 보면 身體에 stress 가 加해지면 大腦皮質이 이것을 받아 視床下部를 거쳐 下髓體에 刺戟이 傳達이 되고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副腎皮質刺戟호르몬의 作用으로 副

50) 민성길, 김진학 : 보길도에서의 火病에 對한 研究 神經精神醫學, 25:464-465.

51) 민성길 : 火病의 概念에 대한 研究 精神神經醫學 第28卷 第4號, 1989, p.612.

52) 민성길 : 火病의 概念에 대한 研究, 神經精神醫學, 第28卷 第4號, 1989, p.614.

53) 민성길 외 二人 : 精神科醫師 및 韓醫師들의 火病에 對한 概念, 神經精神醫學 第28卷 第1號, 1989, pp.148-149, p.151.

54) 민성길 외 二人 : 火病에 對한 力學的인 研究, 神經精神醫學, 第29卷 第4號, 1990, p.872.

55) 李圭泰 : 韓國人的 性과 사랑, 文音社, p.271, p.296, p.298.

56) 金相孝 : 東醫神經精神醫學, (서울 : 杏林出版, 1984), p.259.

57) 李奉鍵 釋 : 異常心理學 (서울 : 星苑社, 1989), p.156.

腎皮質에서 여러가지 호르몬이 分泌되어 全身에 作用하여 反應이 일어나 stress 作用의 有害한 影響을 最小한으로 阻止시키려 한다고 하였으며, 이 反應은 原來 身體가 外界의 變化에 適應하기 위한 症候이므로 凡適應症候群(general adaptation syndrome: GAS)라 하였다<sup>58)</sup>. 思想에 依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들이는 樣相이 다르며 行動의 特定 方式과 結合된 우리들의 態度, 生活속에서 多樣한 事件들에 賦與되는 意味, 價値 그리고 事物을 보는 方式을 個人的 性格이라 하였고, 그 事件을 知覺하는 方式에 依하여 그것들을 스트레스가 가득찬 것으로 만든다 하였다<sup>59)</sup>. 趙는 慢性的인 stress 는 自律神經系의 平衡을 깨뜨리고 甚하면 自律神經系를 支配하는 器官에 器質的인 變化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sup>60)</sup>. 정은 精神 社會的인 스트레스로 因하여 惹起될 수 있는 疾患은 心脈官系疾患에서 血壓을 上昇시키고 血液의 粘度를 높혀 血中の 콜레스테롤을 上昇시킨다고 하였으며, 消化器 疾患에서 stress 性胃潰瘍은 胃에 好發하며 交感神經의 活性化로 因한 胃粘膜의 局所的인 貧血로 胃粘膜의 粘液層이 弱化되어

分泌된 HCL 이 胃粘膜으로 逆으로 擴散되고 코티졸의 分泌增加로 HCL의 分泌가 增加되기 때문이라 하였다<sup>61)</sup>. 이는 再修生集團은 對照郡에 比하여 外因性 不安 性向이 높고 敵愾心이 많지만 內因性 憂鬱 性向은 낮으며 境界線 人格을 지닌 境遇가 많고 健康 變化等 生活變化로 因하여 甚한 stress 를 받고 있으며 神經過敏 症勢나 憂鬱症勢를 흔히 呼訴하고 比較的 長期間 入院하는 傾向이 있다고 하였다<sup>62)</sup>. 氣라는 概念은 心身醫學的인 側面에서 보면 生體防禦機構와 關係가 되며 外界 要因인 stress 의 刺戟을 주는데에도 不拘하고 生體의 恒常性을 維持하는 것은 生命의 에너지인 氣라고 하였다<sup>63)</sup>

〈六微旨大論〉에서는 氣의 升降과 失調에 對해서 記述하고 있으며<sup>64)</sup>, 〈壽夭剛柔〉에 風寒은 形을 傷하고 憂恐怒는 氣를 傷하게 하고, 形과 氣가 서로 믿음 이 있으면 長壽하고, 믿음 이 없으면 夭折한다고 하였다<sup>65)</sup>. 〈陰陽應象大論〉에서 熱은 氣를 傷하게 하고 氣가 傷하면 痛症이 發生하고, 五臟에서 五氣의 發生으로 喜怒悲憂恐이 生하게 되고 喜怒는 氣를 傷한다고 하였다<sup>66)</sup>.

58) 黃義完: 心身症(서울: 杏林出版, 1985), p.28.

59) 李珉圭外 三人 共釋: Stress 그 原因과 對策(서울: 中央適性出版社, 1985), p.40.

60) 趙洪健: Stress 와 노이로제의 漢方療法(서울: 文學藝術社, 1987), p.26.

61) 정현숙外 二人: 大韓看護 第26卷(11,12月號)통권 第143號, pp.25-28.

62) 이길홍: 입원한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의 임상 양상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神經精神醫學, 第27卷 第3號, 1988, pp.459-460.

63) 박희준: 과학기술과 정신세계(서울: 법양사, 1988), p.281.

6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素問, p.244. 出入廢 則神機化滅 升降息 則氣立孤危 故非出入 則無以生長 壯老師 非升降 則無以生長化收藏.

6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靈樞, pp.57. 風寒傷形 憂恐忿怒傷氣 氣傷臟 乃病臟 寒傷形...形與氣相任 則夭.

66) 上揭書: 精校黃帝內經 素問, pp.23. 熱傷氣 氣傷痛...人有五臟化五氣 以生喜怒悲憂恐 故喜怒傷氣 寒暑傷形 暴怒傷陰 暴喜傷陽.

巢는 奔豚氣候 結氣候 七氣候 九氣候 五격 氣候 逆氣候 短氣候 少氣候 遊氣候 等으로 氣의 病理的인 現狀을 記述하고 있으며<sup>67)</sup>, 李는 喜怒憂思가 元氣를 損傷하여 脾胃의 氣가 衰弱하면 元氣不足으로 心火가 獨盛한다고 하였으며<sup>68)</sup>, 黃은 清氣는 左로 旋하여 火로 變하고, 濁氣는 右로 回轉하여 아래로 내려가 水가 되며 火가 化하여 熱이 되고, 水로 化하여 寒이 된다고 하였다<sup>69)</sup>. 汪은 火는 氣의 平을 얻지 못한 것이며 相火는 肝腎에서 일어나며, 虛火는 勞損에서 일어나고, 實火는 亢害에서 生하고, 燥火는 血虛에서, 濕火는 濕熱에 의하여, 鬱火는 抑壓에 依하여 이들은 暴病이며 暴死한다고 했고 모든 病中에서 火病이 많다고 하였다<sup>70)</sup>. 范은 血痰 濕食 火의 五邪는 氣鬱을 同伴하며 氣鬱이 오래 되면 火로 變하여 火鬱이 된다고 하였다.<sup>71)</sup>

#### 4. 火病에 相應하는 韓醫學的인 用語

##### 1) 梅核氣

〈金匱要略：婦人雜病脈證并治〉에 類似한 症狀이 記述되어 있으며<sup>72)</sup> 〈諸病源候論〉에서는 胸膈에 痰結과 氣가 逆上되어 發生한다고 하였고<sup>73)</sup>, 〈萬病回春〉에는 七情之氣가 鬱結이 되어 或은 飲食먹을 때 勞에 接觸이 되면 症狀이 나타나고 婦人의 境遇에 많이 發生되어 治療는 開鬱 順氣 利膈 化痰 清肺 爲主로 한다고 하였으며<sup>74)</sup>, 蔡는 氣質的인 疾患이 아니고 神經症에 屬하며 그 原因을 七情鬱結로 痰涎이 凝滯하여 生킨다고 하였고<sup>75)</sup>, 章은 七情의 抑鬱과 氣와 痰이 相結하여 生킨다고 하였다<sup>76)</sup>

##### 2) 百合病

〈金匱要略：百合孤惑陰陽毒病脈證并治〉에는 百脈에 모든 病이 다 이르게 되며 먹고자 하나 먹지 못하고 恒常 默默하게 있으며 눕고자 하나 눕지 못하고 가고자 하나 가지 못하고 飲食을 먹을 때, 或은 맛있는 것이 있을 때 飲食의 냄새를 싫어하며 추운 것 같으나 춥지 않고 더운 것 같으나 덥지 않고 입이 쓰고 小便이 붉게나온다 하였으

67) 巢元方：諸病源候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p.75-80.

68) 李東垣外：東垣十種醫書(서울：大成出版社，1983)，p.86. 喜怒憂恐 勞役過度 而損耗元氣 既脾胃虛衰 元氣不足 而心火獨盛.

69) 黃元御：黃氏醫書八書(서울：書苑堂)，p.17. 樞軸運動 清氣左旋升而化火 濁氣右轉降而化水 化火則熱 化水則寒.

70) 汪認庵：醫方集解(台北：大光圖書有限公司，1975)，p.271.

71) 范永升：素問玄機原病式 新解(：浙江科學技術出版社，1982)，p.73.

72) 張仲景著，蔡仁植釋：金匱要略精解(大邱：東洋綜合通信教育出版部，1982)，p.182. 婦人咽中如有 炙癪 半夏厚朴湯.

73) 巢元方：諸病源候論(북경：인민위생 출판사，1982)，p.120. 咽中如炙肉變者 此是胸膈痰結 與氣相搏逆上 咽喉之間結聚 狀如炙肉之런也.

74) 龔延賢：增補萬病回春(下)(台北：大中國圖書公司，1977)，pp.37-38. 大切 因七情之氣 鬱結而成 或因飲食之時 觸犯腦勞 遂成此症 惟婦人女子 患此 最多 治宜開鬱順氣 利膈化痰 清肺爲主.

75) 張仲景著 蔡仁植釋：金匱要略精解，1983，p.183.

76) 章眞如：調氣論(湖北人民衛生出版社，1983)，p.77.



며 77), <張氏醫通>에서는 陽火 陰之患이라고 하였다 78).

### 3) 奔豚證

內經에서 처음으로 나오며 79) <金匱要略>에는 놀라거나 火邪에 依하여 이病이 發生한다고 하였고 80), <難經>은 腎之積으로 發生한다고 하였다 81). <諸病源候論>에는 驚恐奔豚之狀과 憂思奔豚之狀으로 나누어 說明하였고 82), 李는 胃病과 脾病에도 臍下動氣가 發生한다고 하였다 83). <辨證奇聞>에서는 心包命門의 火가 衰한 것으로 이야기했고 84), 錢은 腎水之大虛로 보았다 85).

### 4) 煩躁

內經 素問<至眞要大論>의 六氣之復中 少陽之復에 記載되어 있으며 86), <諸病原候論>에서는 中氣虛로 氣血의 相搏으로 氣逆되어 發生된다고 하였고 87), <壽世保元>에는 陰虛로 因하여 內熱이 生겨서 腎水가 枯渴이 되고 心火가 安으로 끓어서 生킨다고 하였다 88). 李는 注에 七情六慾에 依하여 腎水가 虛하게 되어 發生하거나 或은 勞役으로 氣가 衰하게 되어서 火가 旺盛하거나 또는 陰虛나 相火가 動하여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89), 張은 火가 홀로 熾盛하여 發生한다고 하였다 90).

77) 張仲景著 蔡仁植釋: 金匱要略精解<百合狐惑陰陽毒病脈證并治>, pp.34-35...意欲食 復不能食

常默默然 欲臥不能臥 欲行不能行 欲飲食 或有美時 或有不用聞食臭時 如寒無寒 如熱無熱 口苦 小便赤.

78) 張璐: 張氏醫通(清),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273.

7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靈樞 邪氣藏府病形編, p.38. ...腎脈急 甚爲骨節疾 微急爲沈厥奔豚 足不收 不得前後...

80) 張仲景著 蔡仁植釋: 金匱要略精解<奔豚氣病脈證并治>, 1982, p.71. 師曰 病有奔豚 有吐膿 有驚怖 有火邪 此四部病 皆從驚發 得之...從小腹起 上衝咽喉 發作欲死.

81) 成樂箕 編著: 八十一難經解釋(서울: 高文社, 1982), p.56. 五十六難 腎之積 名曰奔豚 發於少腹 上至心下 若豚狀 或上或下 無時久 不已 令人喘逆 骨痿少氣.

82) 巢元方等: 諸病源候論, p.76. 夫奔豚氣者 腎之積 起於驚恐憂思所生 若驚恐則傷腎...神之傷 動氣積於腎而氣下 上遊走如豚之奔...如事所驚 如人所恐 五臟不定...此驚恐奔豚之狀 內煩結痛 溫溫欲區 此憂思奔豚之狀.

83) 李東垣外: 東垣十書<脾胃論, 脾胃盛衰論>, (서울: 慶熙醫大韓醫學部, 1973), p.3. 夫胃病 其脈緩 脾病 其脈遲 且其人 當臍有動氣 按之牢若痛.

84) 清錢松: 辨證奇聞(서울: 杏林書院, 1982), p.231. 名曰奔豚 言其如豕之奔突 其勢甚驟 不可止 身痛不可忍 人以爲外寒之症也 誰知是 心包命門二 經之火衰乎.

85) 錢鏡湖: 辨證奇聞全書(清)(台北: 甘地出版社, 1980), p.217. 人有老年之時 患虛煩不得寐 大便不通 常有一股熱氣 自臍下直沖於心 便覺昏亂慾絕 人以爲火氣之沖心也 誰知是腎水之大耗乎.

8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素問, p.298. 少陽之復 大熱將至 枯熱燔熱 介蟲乃耗...心熱煩躁.

87) 巢元方: 諸病原候論<煩滿候>, p.210. 煩滿者 由體虛受邪 使氣血相搏而氣逆 上乘於心胸 氣否不宣 故令煩滿 煩滿者心煩 胸開氣滿急也.

88) 龍延賢篇: 壽世保元(明)(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305.

89) 李延: 醫學入門, 1989, p.284. 虛煩者 七情六慾 以致腎水虛 而心火煩躁 或雜病後 餘熱未淨 煩或勞役氣衰 火旺而煩 或陰虛 相火動而煩.

90) 張璐: 張氏醫通, 1990, p.305. 經云氣亂於心則煩 蓄熱客於肺則煩 入於腎則躁 惟心獨熾故 肺腎合而爲煩燥也.

〈證治概要〉에서는 煩은 心에 躁는 腎에 歸屬시키고, 心腎相交와 水火의 既濟가 되면 煩燥의 病은 없다고 하였다 91).

#### 5) 上氣候

〈諸病原候論〉에서는 胸中이 逆氣가 되어서 모든 氣가 상충된다고 하였으며 92), 〈東醫寶鑑〉에서는 呼多吸少라 했고 氣息促急이라 하였고 93), 氣의 變調로서는 上衝鬱滯가 있고, 上衝이라함은 循行하고 있는 氣가 위쪽으로 上升하여 버리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된 狀態이며, 上衝을 일으키는 疾患名으로 神經性 心悸亢進, 心臟神經症, 自律神經失調症, 更年期 障礙, 神經症 등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94).

#### 6) 驚悸 怔忡

內經 〈痺論〉에서는 心下鼓 95) 〈平人氣象論〉은 乳之下其動應衣 96) 로 表現이 되어 있으며 〈至眞要大論〉에서는 놀라는 것은 모두 火에 屬한다고 하였고 97), 朱는 정충을 이야기 할때 갑자기 發生하는 것을 血

少라고 했고, 思慮로 因하여 發生하는 것은 虛證으로, 時作時止하는 것은 痰으로 因한 火動으로 보았다 98). 〈萬病回春〉에는 驚悸를 血虛火에 依하여 發生한다고 하였고 99) 思慮로 因하여 心躁한 것은 血虛이며 心躁한 것은 血虛이며 心躁의 症狀이 時作時止하는 것은 痰과 火動이라고 하였다 100). 張은 下焦에 陰虛로 因하여 宗氣가 依支할 곳이 없어 氣가 根源으로 돌아오지 못하여 위로는 가슴에 動搖가 일어나고 아래로는 臍旁部位에 振動이 일어나며 이러한 患者는 마땅히 慾心 疲勞 酒色을 警戒하라고 하였고 101), 唐은 血로 心臟을 기르지 못하여 火氣가 衝動하는 것을 心跳라 했고 火가 心臟을 치받을때 心下가 막히는 듯한데 이를 心下有動氣라 하였으며 102), 君火가 虛하던 悸요 相火가 虛하면 驚이라 했다 103).

#### 7) 藏燥

〈金匱要略〉에서는 婦人이 藏燥하여 喜悲에 傷하여 울고자 하며 104), 〈皇漢醫學〉

91) 歐陽錡: 證治概要(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57.

92) 巢元方等: 諸病原候論, 〈上氣候〉, p.75. 胸中逆氣 是諸氣上衝胸中 高上氣面附鍾臍息.

93) 許浚: 東醫寶鑑(서울: 大成出版社, 1984), p.89.

94) 醫學編輯部, 精神疾患, 醫林社, Vol.184, 1988, pp.68-69.

9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素問, p.162. 心痺者 脈不通 煩則心下鼓 暴上氣而喘……

9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p.65. 乳之下其動應衣 宗氣泄也…

9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p.304. 諸病驚核 皆屬於火

98) 朱丹溪: 丹溪心法附餘(上) (서울: 大成出版社, 1982), p.365. 怔忡者 血虛 怔忡無時 血少多有思慮便動屬虛.

99) 龔延賢: 萬病回春(上), p.231. 驚悸者 忽然 驚湯而不安也 驚悸屬血虛火.

100) 上揭書(上): p.230.

101) 張介賓: 景岳全書, p.325. 蓋陰虛於下則 宗氣無根而氣不歸源 所以在上則 浮聳於胸臆.

102) 唐容川: 血症論, (上海人民衛生出版社, 1977), p.113-114. 俗名心兆 心爲火臟 無血以養之 則火氣衝動 是以兆

103) 上揭書, p.119. 君火虛則悸 相火虛則驚……

104) 張仲景著 蔡仁植釋: 金匱要略精解, p.184. 婦人藏燥 喜悲傷欲哭 傷如神 靈所作 數欠伸 甘麥大棗湯主之.

의 註에 依하면 藏을 子宮으로 보았으며 藏燥는 神經證으로 보았다<sup>105)</sup>. 趙는 히스테리 發作과 類似하다고도 하였다<sup>106,107)</sup>.

### 8) 鬱證

〈壽世保元〉에서는 傳化의 失常로 因하여 發生하며<sup>108)</sup>, 張은 婦人의 境遇에 當이 일어난다고 보았으며 內經에서는 二陽의 病이 心脾에서 일어나며 思想이 無窮하고 願하는 바를 얻지 못하여 이러한 病이 發生한다고 하였다<sup>109)</sup>.

### 9) 上實下虛

內經 素問 〈五臟生成篇<sup>110)</sup>〉 〈脈要精微論<sup>111)</sup>〉 〈解精微論<sup>112)</sup>〉에 記載되어 있으며 〈臨證指南醫案〉에서는 나이가 들어 지나치게 飲食을 먹고 便安하게 자면 頭暈이나 발등에 浮腫이 생기게 되어 걸을 수 없다고 하였다<sup>113)114)</sup>. 婦女의 更年期 神經官能症은 肝腎虛弱이 原因이 되고, 衝任脈이 虛損이 되어서 月經失調와 失血過多가 되어 肝心 血虛가 되며 腎陰虛로 因하여 陰

虛火動이 되어 發生한다고 하였다<sup>115)</sup>. 肝腎不足, 陰虛于下, 陽亢于上으로 因하여 發生하며, 한편으로는 上盛下虛라고하며 腰膝痠軟無遺精은 下虛에 屬한다고 하였으며 肋痛 頭痛 目赤 煩躁 易怒等은 肝陽上亢의 證候에 屬한다고 하였다<sup>116)</sup>.

### 10) 花癩

婦人이 갑자기 顛癩하여서 男子를 보면 끌어안고 놓지 않는다. 이것은 곧 男子를 思慕하여 어찌지 못하다가 갑자기 病을 얻게 되는 것이니 暴風 疾雨와 같아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男子를 보면 자기의 情人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肝木이 枯槁하고 內火가 藩盛한 것이다<sup>117)</sup>.

### 11) 血崩

素問 〈痿論〉에서는 心과 胞絡이 遮斷이 되어 나타난다고 하여 精神과 下血의 相關關係를 이야기했으며<sup>118)</sup> 王은 肝經의 肝火 肝經에 風으로 火를 내어 肝火를 動하게 하여 脾經鬱結 悲哀太過로 因하여 發生한다고

105) 湯本求真 著編 周子叙 釋: 皇漢醫學(大邱: 東洋綜合通信大學教育部, 1972), p.339.

106) 趙洪健: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의 漢方療法, 文學藝術社, 1986, p.112.

107) 韓東世: 精神科學(서울: 大正文化社, 1986), p.117. Hippocrates는 히스테리가 女子의 子宮 hysteron이 몸안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다.

108) 龔延賢篇: 壽世保元(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141.

109) 張璐: 張氏醫通(清), 1990, p.107.

1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素問, p.39. 是以頭痛 顛疾 下虛相實,

111) 上揭書, p.59. 來疾去徐 上實下虛 爲厥顛疾

112) 上揭書: p.324, p.325. 夫人厥則陽氣并於上 陰氣并於下 陽并於上則火獨光也, 陰并於下則足寒.

113) 葉天士著, 徐靈胎評: 臨證指南醫案(卷一)(台北: 旋風出版社印行, 1967), p.11. 高年頗得納穀安寐 春夏以來 頭暈付腫 不能健步 此上實下虛 腎氣衰 不主攝納 肝風動.

114) 上揭書, p.7. 因榮思擾動五志之陽 陽化內風 變幻不已 夫陽動莫制 皆臟陰少藏 自覺上實下虛.

115) 新中醫: 第20卷, 第3期, 廣州中醫學院篇, p.24. 多因肝腎虛損 沖任虧損 月經失調 失血過多 造成心肝血虛 心失所養 神明失守 腎陰虛則髓海不足 元神之府不利 肺朝百脈 陰血不足則 百脈空虛 臟腑失養 陰虛火旺 下虛上實 故成此疾.

116) 中醫研究院, 廣東中醫學院: 中醫名詞術語詞典(商務印書館, 1979), p.189.

117) 洪元植譯: 國譯石室秘錄, p.97.

1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素問 痿論, 悲哀太甚 則胞絕絕 胞絕絕 則陽氣內動 發則心下崩數寸墮也.

하였고<sup>119)</sup>, 葉은 君火와 相火가 動하면 熱이 熱을 불러 肝이 藏하지 못하고 脾가 攝하는 作用을 하지 못하며 이를 火로 因하여 생긴 病이라고 하였다<sup>120)</sup>

### 5. 更年期 障礙에 대한 考察

內經의 〈上古天真論〉에 처음 記述이 되고 있으며<sup>121)</sup> 〈陰陽別論〉에는 隱曲不利로<sup>122)123)124)</sup> 小는 血道症이라 했고<sup>125)</sup> 大는 不整愁訴症候群으로 보았으며 기질적인 疾患은 보이지 않으나 一郡의 患者라고 했으며 西醫學의 疾病 分類로는 同一化가 不可能한 臨床症候群이라 하였다<sup>126)</sup>. 浮은

不整愁訴症 原因을 大別하면 更年期 自律神經失調症 心因性 두가지로 分類가 되는데, 前者는 更年期 自律失調症 月經時 自律神經失調症 骨盤鬱血症候群으로 後者는 心身症型 神經症型 鬱病症型으로 區分을 하였다<sup>127)128)</sup> 孫은 鬱證은 現代醫學에서 말하는 神經官能症 中の 神經衰弱 의병과 更年期 綜合症 등을 包括한다고 했다<sup>129)</sup>. 醫林에서는 氣의 變調에 依해서 오는 上沖鬱滯가 있는데 上沖을 일으키는 疾患名으로는 神經性 心悸 抗進 心臟神經症 自律神經失調症 神經症 更年期 障礙등을 들수가 있다고 했다<sup>130)</sup>. 閉經은 月經의 終結을 意味하며 更年期를 特

- 119) 王肯堂：證治準繩(明)(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4，p.67. 或因肝經肝火 血得熱而下行 或因肝經有風 血得有風而妄行 或因勞動肝火 血熱而沸騰 或脾經鬱結…或因悲哀太過 胞絡傷而下崩。
- 120) 葉天士 傳青主原著 蔡仁植校正：新編早青主男女科 葉天士女科(清)，1984，p.89. 君 相火動 以熱招熱 同氣相求 翕然齊動 以鼓其精房 血海泛濫 有不能止遏之勢 肝欲藏之而不能 脾欲攝之而不得…是惟火之爲病也。
- 121) 洪元植：精校黃帝內經 素問 pp.11-12. 七七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衰而無子。
- 122) 洪元植：精校黃帝內經，素問 p.31. 二陽之病發心脾 有不得隱曲 女子不月。
- 123) 馬元臺 張隱庵合柱：黃帝內經素問靈樞合本(台北：台聯國風出版社印行，1970)，p.64. 張註 二陽病則 中焦之汁竭 無以奉心神而化赤…男子無精 有不得爲 隱曲之事在 女子無血 則月事不得 以時下矣 馬註 女子有 不得隱曲之事 鬱之于心 故心不能生血 血不能養脾…則水穀衰少 無以化精…
- 124) 沈堯封：沈氏女科輯要 影印(台北：台聯國風出版社，1964)，p.7. 二陽 指陽明經言 不指臟腑言 二陽之病發心脾者 陽明多爲多血之經 血乃水穀之精氣 籍心火煖而成 憂愁思慮 傷心因及其子 不嗜飲食 血無以資生 陽明病矣。
- 125) 小倉重成，藤平 健：漢方概論(大阪 創元社，1956)，p.313.
- 126) 大塚恭男：東洋醫學入門(東京：日本評論社，1983)，p.164.
- 127) 醫林：醫林社，不定 추訴와 漢方療法(浮田 徹也)，184 호，1988，p.38.
- 128) 김우겸：中樞神經生理學(서울：생명의 이치，1988)，pp.84-85，p.89.
- 交感神經 全體가 同時에 興奮하면 散瞳 起毛 血管收縮 發汗 頻脈 血壓上昇 血糖濃度の 增加 血液凝固時間의 短縮 消化抑制가 同時에 나타난다. 副交感神經은 모두 미주神經에 包含되어 延髓를 나오므로 未走神經을 副交感神經의 代表라고 할수가 있다. 心臟에 대해서는 抑制的 作用을 하며…肺의 미주神經은 氣管支收縮과 氣管支腺 分泌를 促進 한다…薦髓 副交感神經은 膀胱과 結腸을 收縮시켜 反射的으로 排尿와 便을 일으킨다…交感神經系의 興奮과 함께 그 支配를 받는 副腎髓質에서 epinephrine, norepinephrine 이 分泌됨으로써 더욱 強化된다.
- 129) 孫淑英編譯：問答式 韓方內科學(서울：成輔社，1991)，p.307.
- 130) 醫林：醫林社，184 호，1988，pp.68-69.

徵짓는다고 하였는데 131), 陳은 비구니나 寡婦는 陰만 있고 陽이 없어서 慾心이 發하여도 이루어지지 않아 寒熱이 瘧疾의 症狀과 같으며 經閉가 일어나고 132), 王은 月事가 오지 않으면 먼저 心火를 瀉하면 月事가 생긴다고 하였고 133) 心을 過勞하면 心火가 上行하여 月事가 오지 않은 것은 胞脈이 閉한 것이라 하였다 134). 張은 諸氣門上에서 婦人은 陰에 치우쳐 있으며 氣에 쉽게 動할 수가 있으며 痺悶 脹痛하고 위로는 心胸으로 나아가고 脇肋部位에 치받치고 腹中에 덩어리가 생기고 月水가 고르지 못하며 眩暈 嘔吐 寒熱往來가 생기는데 이는 모두 氣의 症候라고 하였다 135). 葉은 四九五旬經證에 天癸가 不瀉이면 血이 有餘한 것이며 藥을 使用하여 멈추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136). 鄧은 生殖系統과 關聯된 機能의 失調와 胞絡이나 子宮에 氣滯 血瘀 寒濕凝滯로 因하여 經閉가 온다고 하였으며 137) 血虧 經閉에서는 營養 不足으로 因하여 血液이 減少하여 血虛하면 內熱이 생기는 것이니 그 結果로 더욱 虛해지면 熱도 甚해지고 熱이 甚한즉 虛도 더욱 甚해지니 肌肉이 더욱 말라 바람이 消物시키는 것과 같

으니 “風消”라 했다 138)139). 閉은 閉經期 內分泌의 變化는 서서히 나타나며 生殖腺刺戟 호르몬은 排卵이 그치기 數年前부터 增加하기 始作하는데 卵胞호르몬이 黃體形成호르몬보다 더 많이 增加하며 臨床上에는 月經의 變化와 血管 運動上의 變化는 夜間에 더 많이 있으며 頭部 壓迫感으로 始作하여 頭頸部 및 上胸部에 熱感을 誘發한 後에 發汗이 나타나며 10-20分間 持續이 되는데 50%에서는 1년 이내에 消失이 되며 20-50%에서는 5年以上 持續이 된다고 하였고, 주로 에스트로겐의 投與로 90% 치료되는데 不作用은 出血의 原因이 되며 乳房의 壓痛, 惡心이 나타나며 色素沈着 偏頭痛 高血壓 膽囊疾患 膽汁鬱滯를 招來하여 子宮內膜癌의 頻度を 높인다고 하였다 140).

韓은 更年期憂鬱症에 對해서는 焦燥 不安이 따르고 非現實感 健康念慮症 虛無妄想 등의 精神症的 症狀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通例라고 했으며 心理的인 反響이 더 큰 意味를 갖는 病因的 要素가 된다고 하였다 141) 李는 閉經期의 感情的인 動搖가 甚한 女性中에는 大概 過去歷에서 月經前 憂鬱症 月經困難症 및 月經障礙 등의 經驗했던 境遇

131) 醫學教育研修院篇: 家庭醫學(서울: 서울大學教 出版部, 1990), p.483.

132) 陳自明著 薛立齋註: 婦人良方大全, 文光圖書有限公司印行, p.9.

133) 王肯堂: 證治準繩(六)女科 券之一(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56. 女子月事不來者 先瀉心火 血自下也.

134) 上揭書: p.58. ...或因勞心 心火上行 月事不來者 胞脈閉也...

135) 張璐: 張氏醫通(清) 諸氣門上(상해: 상해 과학기술 출판사, 1990), p.103. ...婦女性執多偏屬陰 氣易於動 如痺悶脹痛 上瀆心胸 或攻築脇肋 腹中結塊 月水不調 或眩暈嘔吐往來寒熱 一切氣候.

136) 吳縣葉 著: 葉天士女科診秘方, 台聯國風出版社印行, p.15.

137) 鄧鐵濤 主編: 中醫學新編(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753.

138) 北京市中醫學教編: 醫宗金鑑婦科心法要訣白話解(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20.

1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素問 陰陽別論, p.31. 不月有不得陰曲 血枯其傳爲風消 息賁者死不能醫.

140) 閔獻基: 臨床內分泌學(서울: 高麗醫學, 1990), pp.434-435.

141) 韓東世: 精神科學, (서울: 大正文化社, 1986), p.162.

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였다<sup>142)</sup>.  
 金은 更年期 障礙가 單一한 原因으로 發顯  
 된다고 보는 것보다 內分泌因子와 그에 關  
 聯되어 變動하는 自律神經的 因子 및 精神的  
 因子 等 여러가지 因子가 서로 엉켜서 惹起  
 된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하였다<sup>143)</sup>.  
 婦人科學에서는 煩燥 轟熱 頭暈 目眩 心悸  
 失眠 口乾 咽燥 納穀不香 手足心熱 背痛 精  
 神疲憊 情緒激動 耳鳴 健忘 皮膚異常感覺  
 血壓偏高를 更年期 綜合症에 두고 있으며<sup>144)</sup>  
 更年期 證候에 대하여 宋은 上熱感 性慾喪  
 失 性交痛 焦燥 不眠 不安 憂鬱 疼痛 頭痛  
 排尿切迫 失禁이라 하였고<sup>145)</sup> 전은 生理  
 및 內分泌系 自律神經系 生殖器系 血管運動  
 系 心臟血管系 消化機系 骨格系 皮膚筋肉系  
 의 變化로 區分하며<sup>146)</sup>, 潮熱에 對해서는  
 陰虛 偏陰虛 肝心火 旺盛하다고 하였다<sup>147)</sup>  
 金은 上熱感에 對해서 更年期 障礙의 2/3  
 에서 불수가 있으며 이것은 間腦의 溫度中  
 樞의 變調로 나타나는 症狀이고 血液이 顔  
 面小血管에 急激히 모여 皮膚의 溫度가 上  
 昇하고 熱感을 隋伴한 다음 發汗하고 血管  
 이 收縮된다고 說明하였다<sup>148)</sup>, 李는 Meld-  
 rum 등이 上熱 發生時 GH와 LH치가 同

時에 上昇함을 觀察하고 GH와 LH의 分泌  
 에는 視床下部의 peptidergic neuron에  
 서 norepinephrine이 關與하고 熱調節  
 neuron이 peptidergic neuron과 隣  
 接하고 있는 事實로 보아 卵巢機能 不全에  
 의 한 norepinephrine의 上昇이 上熱을 誘  
 發할 可能性을 提示한 바 있다고 하였다<sup>149)</sup>.  
 男性 更年期 綜合症은 一般的으로 55-65 歲  
 사이에 일어나며 女性的 更年期 時期는 卵  
 巢機能의 完全한 減退로 內分泌 失調 現狀  
 이 顯著하고 症狀이 많으나 男子의 境遇는  
 辜丸 機能의 退化에 依하여 女性에 比하여  
 緩慢하여 更年期 以後에도 精子가 完全히  
 消失이 안된다 하였다<sup>150)</sup>. <上古天真論>  
 에서는 七八에 肝氣가 弱해지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고 天癸가 枯渴이 되어 精少하  
 게 되며 腎臟衰가 된다고 하였다<sup>151)</sup>. 李는  
 尿中の 性腺 刺戟 호르몬 排泄量은 많으나  
 男性 호르몬 排泄量은 줄어들며 老人의 健  
 립선 肥大證을 更年期 症狀으로 보는 이가  
 있다고 하였다<sup>152)</sup>. 전은 男性에게도 體重  
 의 增加의 傾向과 粥狀硬化證과 骨多空證  
 에 對한 敏感性이 增加하고 있다고 하였고<sup>153)</sup>  
 石은 老化를 生體의 衰退의 變化로써 把握

142) 李內允, 徐光潤: 現代精神醫學(서울: 大正文化社, 1987), p.299.

143) 金英근: 한국 의과학, 제 3권 제 5호 71(398), 1971.

144) 婦人科學: 上海中醫學院(香港: 常務印書官, 1976), p.90.

145) 李京燮編譯: 圖解臨床婦人科(서울: 書苑堂, 1987), p.144.

146) 大韓看護, 제 24권 2호(통권 130호) 5,6월호, 대한간호협회, pp.72-75.

147) 新中醫: 第20卷 第8期, p.10.

148) 金英근: 한국의 과학, 제 3권 제 5호, 71(398), 1971.

149) 이진용: 중앙의학, 제 50권 제 4호, p.264.

150) 王琦, 曹開鑄 主編: 中醫男科學(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 p.190, p.195.

15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上古天真論, p.11.

152) 李熙永: 男性科學(서울: 서울大學出版部, 1987), p.230.

153) 전산초, 최영희: 老人看護學(서울: 壽文社, 1985), p.65.

하려고 함으로 당연히 整體觀에 依據한 有機的 關聯하에 考察하여야 하는데 陰陽의 變化, 臟腑의 變化, 氣血의 變化, 經絡의 變化, 情志의 變化로 觀察하였다<sup>154)</sup>.

### 5. 火의 治法

壽世保元에서는 陽虛之病은 甘溫之劑로 除去하고, 相火熾盛하여 血虛之病에는 甘寒之劑로 降之하고 當歸나 熟地黃이 屬하며 心火가 抗劑하면 鬱熱內實이 되어 陽強之病이 되는데 鹹冷之劑인 大黃 芒硝로 降折하고 腎陰의 損傷으로 無根之火가 發生하여 陰虛至病이 생기면 壯水之劑인 生地黃 玄蔘으로 制止하고, 腎經 命門之火가 衰하면 陽脫之病이 생기는데 이는 溫熱之劑인 附子나 乾薑으로 制하라고 하였으며<sup>155)</sup> 錢은 心과 腎의 關係에 있어서 心腎의 相關 關係를 重要時 하였다<sup>156)</sup>

## III. 總 括

### 1. 火에 對한 考察

內經에서 壯火와 少火가 처음 提起된 以後로 火에 對한 論爭은 金元四代家들에 依하여 많은 論爭이 되어왔으나 火에 對해서 劉完素와 張宗政은 病理的인 火인 實火로 보았고 李東垣은 病理的인 側面에서는 虛火 內傷火로 보았으며, 朱丹溪는 火의 病理的인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生理的인 面도 強調을 하였다. 張子和는 陽이 有餘해서 病이 發生하며, 李東垣은 氣의 觀點에서 보고 있는

데 사람이 成長하면서 氣의 不足에 依하여 病理的인 火로 轉變되어 가는데 이를 陰火의 觀點에서 論述하고 있고, 氣弱의 觀點은 氣의 過敏 現狀을 意味하며 조그만 現狀에도 氣의 過敏 現狀이 發生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氣의 機能 發顯도 三焦를 通하여 機能 發顯이 된다고 하였다. 張景岳은 火의 虛實을 區別하여야 하며 病理的으로만 본 劉河間의 理論을 매우 批判하였는데 生理的인 火가 病理的인 火로 變하는 要因은 外感, 七情의 變化, 飲食關係 등으로 區別할 수가 있으나 重要時 여긴 것을 七情의 變化가 아닌가 生覺이 된다.

### 2. Stress에 對한 考察

스트레스의 意味는 누른다, 抑壓한다는 意味가 있으며 韓醫學的인 鬱證이나 氣의 觀點에서 보면 氣鬱 氣滯 氣結 등의 循環에 依하여 發生하는 病證을 나타내는 것을 意味하며 現代醫學的으로 보면 內分泌의 異常을 招來하며 疾病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氣의 變化 특히 七情의 變化에 依하여 惹起되는 症狀과 매우 類似點이 많은 것 같다.

### 3. 火病의 考察

患者들이 이야기하는 火病의 臨床的인 症候群이 韓醫學에서 이야기하는 火의 症狀과 매우 恰似한 點이 많으며 症狀이 虛火와 實火가 同時에 發生이 되고 있는데 七情의 不均衡으로 內部的 氣의 通路의 遮斷에

154) 東洋醫學：東洋醫學研究所，第14卷 第1號 通卷 第39號，p.69.

155) 龔延賢，壽世保元 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9.

156) 錢鏡湖：辨證奇聞全書，清，台北，甘地出版社，p.218，1980. 夫心中之液 實腎內之精也 心火畏 腎水之剋 乃假剋也 心火喜 腎水之生 乃眞生也 心得 腎之交 而心乃生 心失腎之通 而心乃死.

依하여 或은 個人的 刺戟程度를 認識하는 것에 依하여 받는 刺戟量도 달라진다.

#### 4. 更年期的 考察

韓醫學에서 이야기하는 更年期는 節의 概念으로 認識이 되어야 하며 節의 意味는 많은 變化를 發生시키고 節과 節의 사이는 顯著的 變化가 보인다. 個人에 따라 節의 週期의 差異는 變化할수가 있으나 上古天眞論과 天年篇에서는 七, 八, 十의 單位로 人體의 變化의 段階를 敘述하고 있다. <陰陽別論>에서 隱曲不利을 閉經과 勃起不能의 意味로 解釋하는 醫家도 있어 男女 모두의 更年期를 意味하는 것으로 思料가 된다. 更年期의 症候群은 火의 病理的인 症狀과 매우 一致하고 있다.

#### IV. 結 論

1. 火病에 나타나는 外部의 臨床症候群은 오래되어 나타나는 鬱症과 積의 概念을 包含하고 있다.

2. 火病에 나타나는 病理的인 火는 壯火 五志之火 陰火 相火 有餘之火 有餘中不足之火 不足之火 邪火 包絡之火를 意味한다.

3. 火病과 更年期의 好發되는 年齡이 類似하다.

4. 男女 更年期를 韓醫學的으로는 隱曲不利나 天癸止라는 觀點에서 볼수가 있다.

5. 火病이나 stress 更年期 障礙는 氣나 火의 不調和에 依하여 異常을 招來할 수가 있으며 이는 自律神經失調나 호르몬의 不均衡에 依하여 發生한다.

6. 生理學的인 火인 少火 命門之火 相火 眞陽之火는 免疫的인 側面에서 볼수가 있다.

#### 參 考 文 獻

1. 具本泓外 四人：東醫心系內科(서울：書苑堂, 1987)
2. 김우겸：中樞神經生理學(서울：생명의이치, 1988)
3. 金相孝：東醫神經精神內科學(서울：杏林出版, 1984)
4. 金完熙, 崔達永：臟腑辨證論治(서울：大成出版社, 1985)
5. 金永勳著, 李鐘馨編：晴崗醫鑑(서울：成輔社, 1988)
6. 南光祐 外二人 監修：韓國大辭典(서울：玄文社, 1976)
7. 杜鎬京：東醫腎系內科學(서울：東洋醫學研究所, 1989)
8. 孫淑英 編釋：問答式 韓方內科學(서울：成輔社, 1991)
9. 宋在國：周易集解(서울：成正出版社, 1989)
10. 成樂箕編著：八十一難經解釋(서울：高文社, 1982)
11. 李奎泰：韓國人的 性과 사랑, 文音社, 1990.
12. 李奉鍵釋：異常心理學(서울：書苑社, 1985)
13. 李京燮 編釋：圖解臨床婦人科(서울, 書苑堂, 1987)
14. 이병윤, 서광윤：현대정신의학(서울, 대정문화사, 1986)
15. 이희영：남성과학(서울, 서울출판사, 1987)
16. 趙洪健：Stress 와 노이로제의 한방요법(서울：문학예술사, 1987)
17. 蔡仁植釋：金匱要絡精解(大邱：東洋綜合



- 통신教育出版社, 1982)
18. 韓南洙: 石塘韓醫學, 國際印刷工業社, 1985.
  19.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서울: 杏林出版社, 1980)
  20. 洪元植釋: 國釋石室密錄(上)(서울: 書苑堂, 1991)
  21. 黃義完: 心身症(서울: 杏林書院, 1985)
  22. 이민규의 3인 공식: Stress 그 원인과 대책(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5)
  23. 李丙允, 徐光潤: 現代精神醫學(서울: 大正文化社, 1986)
  24. 李京燮編釋: 圖解臨床婦人科(서울: 書苑堂, 1987)
  25. 李熙永: 男性科學(서울: 서울대학출판부, 1987)
  26. 醫學教育研修院編: 家庭醫學(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27. 金勳: 李奎晚의 生涯와 學說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院, 1979.
  28. 東洋醫學: 東洋醫學研究所, 第14卷 第1號 통권 第39號.
  29. 大韓看護: 第24卷 2號(통권 130호) 5,6월호, 대한간호협회.
  30. 민성길: 瘧병의 개념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28권 제4호, 1989.
  31. 민성길의 二人: 정신과 의사 및 한의사들의 화병에 대한 개념, 신경정신의학, 제28권 제1호, 1989.
  32. 민성길 外 二人: 화병에 대한 일역학적인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29권 제4호.
  33. 醫林編輯部: 精神疾患, 醫林社, 184호 1988, pp:68-69.
  34. 李東植: 火病考 - 學問하는 態度, 對話 3.
  35. 李時炯: 瘧병에 대한 연구, 고려: 권일권, 제2호, 1977.
  36. 정현숙의 2인: 입원한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의 임상 양상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27권 제3호, 1988.
  37. 蔡仁植: 〈人身의 火에 關한 研究〉, 醫林社, 77호, 1966.
  38. 龔延賢: 補萬病回春(下)(台北: 大中國圖書公社, 1977)
  39. 歐陽錡: 證治概要(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40. 唐容川: 血證論(上海: 上海人民衛生出版社, 1977)
  41. 鄧鐵濤 新編: 中醫學 新編(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42. 馬元臺, 張隱庵 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本(台北: 台聯國風出版社印行: 1970)
  43. 范永升: 素問玄機原病式神解(浙江省: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4)
  44. 巢元方: 諸病源候論(北京: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2)
  45. 孫一奎: 赤水玄珠(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46. 沈堯封: 心氏女科輯要 影印(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64)
  47. 葉天士: 傅青主原著 蔡仁植校正: 新編傅青主男女科 葉天士 男女科(서울: 大成出版社, 1984)
  48. 葉天士著, 徐靈胎評: 臨證指南醫案(卷一)(台北: 旋風出版社印行, 1967)
  49. 吳縣葉 桂著: 葉天士女科診秘方, 台聯國風出版社印行.
  50. 王肯堂: 證治準繩(明)(上海: 上海科學

- 技術出版社，1984)
51. 王琦，曹開鏞 主編：中醫男科學(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1988)
  52. 劉完素：素問玄機原病式(南京：江蘇科學出版社，1981)
  53. 李東垣：東垣十書(서울：慶熙醫大韓醫學部，1973)
  54. 李 梴：醫學入門(서울：高麗醫學，1989)
  55. 張從政 校註 張海嶺外 三人：儒門事親(南京：河南科學技術出版社，1984)
  56. 張景岳：景岳全書(上册)(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4)
  57. 張璐：張氏醫通(清)(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90)
  58. 章眞如：風火痰火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6)
  59. 錢鏡湖：辨證奇聞全書(清)(台北：甘地出版社，1980)
  60. 朱丹溪：格治餘論(南京：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5)
  61. 朱丹溪：丹溪心法附餘(上)(서울：大成出版社，1982)
  62. 趙獻可：醫貫(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
  63. 陳士鐸：辨證錄 卷之六(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9)
  64. 陳子明著 薛立齊註：婦人良方大全，文光圖書有限公司印行
  65. 黃元御：黃氏醫書八書(서울，書苑堂)
  66. 北京市中醫學新編：醫宗金鑑婦科心法要訣白話解(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0)
  67. 上海中醫學院：婦人科學(商港：常務印書官，1976)
  68. 大塚恭男：東洋醫學入門(東京：日本評論社，1983)
  69. 小倉重成，藤平 健：漢方概論(大阪：創元社，1956)
  70. 湯本求真 編著 周子紋 釋：皇漢醫學(大邱：東洋綜合通信大學教育部，1972)